

이덕일의 '역사의 창'



'사료' 없는 '생각' 역사학

필자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역사학은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학문이라는 점이다. 이 점이 역사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한 강단 사학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료'를 조작하거나 없는 '사료'를 있는 것처럼 속인다. 자칭 '실증 사학'이지만 '실증'은 없다.

강단 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연대는 서기 369년이다. 야마토왜(大和倭)가 가야를 점령하고 이른바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해이기 때문이다. 강단 사학의 스피커로 전락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박)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야본성(加耶本性)'이라는 이름의 가야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아놓은 가야 유물들은 훌륭했다. 문제는 벽면에 써놓은 연표와 설명문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작성했다면 명실이 상부했다라는 점이다. 그 연표는 369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 "가야 7국(비사벌, 남가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왜 연합의 공격을 받음(서기)"

'서기'는 720년에 편찬한 '일본서기'를 뜻하는데 관람객들이 "엔 일본서기?" 라는 의문을 제기할까봐 '서기'라고 축약해 관람객들을 호도한 것이다. '일본서기'

를 '서기'로 축약했으니 '삼국사기'는 '사기', '삼국유사'는 '유사', '동국여지승람'은 '승람'이라고 축약했다. 삼국사기를 삼국사기라고 쓰지 못하고 '사기'라고 축약하고 삼국유사를 삼국유사라고 쓰지 못하고 '유사'라고 축약했다. 에비를 에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 흥길동인가.

이 연표는 '일본서기' 신공(神功) 49년에 야마토왜군이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7국을 평정했다"고 나오는 기사를 옮겨놓은 것이다. 야마토왜가 공격한 곳은 신라인데 점령한 곳은 가야라는 희한한 결과를 적어 놓았다. 만약 유럽사에서 '프랑스를 공격해서 독일을 점령했다'라고 서술한 역사서가 있다면 즉시 폐기처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신병적 논리를 통할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한국 역사학계와 일본 국우파 역사학계이다.

문제는 '일본서기' 신공 49년은 서기로 249년이지 369년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 역사학계와 일본 국우파 역사학계는 120년을 더해서 369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바꾸려면 사료적 근거를 대야한다. 그러나 그런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이다.

더욱이 '일본서기'가 연대가 맞지 않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최소한 신공왕후 때의 사건에 대해서는 연대를 정확하게 써 놓았다는 점이다. 일본서기 '신공 43년 조'는 "위지(魏志)에서 말하기를 정시(正始) 4년에 왜왕이 다시 사신을 보냈다"라고 썼다. 정시는 조조(曹操)가 세운 위(魏)의 3대 임금 조방(曹芳·재위 239-254)의 연호로서 서기 240년부터 249년까지 사용했는데 정시 4년은 서기 243년이다. 일본서기는 신공 43년, 곧 서기 243년에 왜왕이 사신을 보냈다고 썼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 '신공기'는 신공 39년(239년), 신공 40년(240년)에 왜와 위가 교류했다고 연대를 정확하게 써 놓았다. 일본서기 편찬자들은 신공 49년은 서기 249년이라고 정확하게 써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1300여년 후에 한국 역사학자 전부와 일본 국우파 역사학자들은 제멋대로 120년을 더해서 369년이라고 우긴다. 유일한 근거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밖에 없다. 인류에 역사가 생긴 이후 이런 역사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생각' 역사학을 비판하면 '사이비 역사학'이나 '유사 역사학'이니 딱지를 붙여 제거하려 한다. 실증 없는 실증 사학의 비극이다. 더 큰 비극은 이런 '생각' 역사학이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라는 점이다. 세계 10위권 국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마약, 단 한번의 사용으로 중독



김경중 제일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우리사회는 과거부터 마약 범죄를 일부 유명 연예인과 일부 특권층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마약 가격이 저렴해지고 SNS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 쉬워지면서 학원가와 가정에까지 퍼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뒷거래 마약을 사회 불안의 실체로 심각하게 봤다.

대검찰청에서 2022년 발표한 마약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무직과 직업 미상을 제외하면 회사원과 노동자, 학생, 농업인 순으로 마약사범이 많았고 전체 적발 건수의 54.7%가 20-39세까지의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국가의 미래를 매우 암울하고 불안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마약(麻藥·narcotic)이란 단어는 의학적 용어라기 보다는 법적 용어에 가깝다. 마약은 그 위해성으로 인해 법적인 제재 물질로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양귀비, 아편, 코카인과 이 세 가지에서 추출 및 합

성된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 등을 마약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마약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합해서 마약류라고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 유통, 판매에 관련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법적 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약류 사용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해라는 결과이다.

마약류는 어떤 종류이든 단 한번 사용으로도 중독에 이르며, 오용시 사망할 수 있는 독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체 전반에 걸친 고통과 괴로움, 치명적인 증상들과 극심한 우울증, 지독한 환각, 망상과 공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괴이한 정신적 증상들을 안겨 준다.

마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중독에는 직장을 잃고 가정을 파괴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등 현실은 마약을 복용할 때와는 정반대의 지옥이 된다. 마약의 위해성을 알고 끊는다고 해도 마약이 뇌신경계에 주었던 강력한 쾌감의 경험이 계속 남아 무엇을 해도 의미와 즐거움이 없는 공허감을 안겨준다. 마약의 의존성이 남아있는 경우엔 끊을 때마다 지옥보다도 더 괴로운 금단현상이 다시금 마약에 손을 대게 한다. 더구나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순간에 다시 갈망감이 찾아 오기에 마약사범의 3분의 1 정도가 재범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래 천사였던 악마는 사람들에게 처음엔 천사처럼

다가가지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뒤엔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어 그 사람에게서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고, 결국엔 죽음 혹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 악마를 보여달라고 하면 종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겠지만 의료인으로서 필자는 바로 마약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악마'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약이 내민 악마의 손을 잡을까. 모든 마약 사용자가 같지는 않겠지만 삶이 몹시 힘들 때 위로받는 도피처로, 더 강한 쾌락과 안정감을 위한 호기심, 혹은 성적을 올리려는 이유 등 마약에게서 악마가 아닌 '천사'의 모습만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약에 취약한 개인의 심리, 이를 자극하는 범람하는 인터넷 정보, 그리고 이미 마약을 경험하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복합적 현실이 이 사회 속에 마약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마약에 빠진 이들을 건강할 현실로 데려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의 과정과 같다. 6월 25일이 과거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날이라면, 그 다음 날인 6월 26일인 '마약 퇴치의 날'은 미래 사회의 운명을 건 현재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선 지금 당장 마약을 할 이유가,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분위기를 바꿔 지금 당장 마약을 할 이유보다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강한 신인류가 되게 하는 새로운 사회를 꿈꿔 본다.

기고

반대로 가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



임채임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인구 대비 10%인 500만 명까지 외국인 유입을 추진하는 다문화사회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9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위탁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비자, 체류 임금, 산재 등에 대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센터는 한국어 교육, 귀국 의식 교육, 문화 행사 및 국가별 커뮤니티도 지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7일 일방적으로 아무런 설명 자료 없이 내년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하면서 지금까지 센터가 수행하던 역할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나누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건축 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만약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폐지된다면 미등록이나 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아와 터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

이 부재하게 된다. 고비용의 행정사, 변호사, 심지어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비자 문제, 체류 임금 및 산재 피해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부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사법 경찰권이 부여된 공무원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미등록 외국인은 체포당할까 두려워 방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에서는 벌써 외국인 노동자 시장을 중심으로 센터 폐지에 따른 유료 서비스 모델을 설계해놓고 발 빠르게 사업을 전개하려는 브로커들이 우후죽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9(고용 허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건당 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거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노동부만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센터 폐지가 현실화되면 외국인의 입탈과 이탈은 날로 늘어나 불법 체류가 급증할 것이다. 또 마약, 금융사기,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각종 사회문제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이민 정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이 조연한 이민 정책 우선 순위는 한국어를 중

시하라, 즉 '사회 통합'에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연하고 있다.

센터 폐지는 곧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날 무료로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초 법률, 산업안전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센터는 평일에는 전화 상담과 병행하여 센터를 찾기 어려운 농축산업 사업장을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 통역과 상담, 농장주 고용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능 역시 사라지는 셈이다.

센터 폐지는 그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숙달된 원어민 상담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이기도 하다. 외국인 5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 날, 노동부에 외국인의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과 이민 행정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임을 감히 제언하고 싶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되레 확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폐지 정책인가 묻고 싶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심정으로 노동부의 정책에 대해 예산 반영을 요구할 것이다.

社說

무르익는 공항 이전... 시도 지사가 결단해야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이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등 주민들의 여론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함평과 무안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씩을 상대로 실시한 광주 군 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에 대한 찬반을 묻은 결과 함평에선 찬성이 44.9%로 반대(42.9%)보다 3% 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는 지난 9월 1차 조사보다 찬성 의견이 3.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찬성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안에서는 찬성이 44.4%로 반대(47.8%)보다 3.4% 포인트 낮았지만 한달 만에 찬성 의견이 7.3% 포인트나 늘어 군 공항 유치 반감이 빠른 속도로 잦아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력 후보지 주민들의 여론 변화는 지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런 가운데 그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민간 공항과 군 공항 동시 이전에 답을 쥐어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의 발언에는 전남도는 그동안 후보지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할만큼 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무안 군에 인구 2만 규모의 신도시 건설 비전을 제시했고 함평군은 정주 인구 1만 명 내외의 신도시 건설 청사진을 내놓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남도가 먼저 군 공항 유치 의향을 제출하면 그때 민간 공항 이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지금은 답이 먼지냐 달갑이 먼지냐 다들 때가 아니다. 전남도가 후보지를 확정해 광주시에 건넨다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여론 수렴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광주시도 전형적인 자세로 공항 이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결국 시도 지사가 만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예산 낭비하는 용역 만능주의 이대로 둘텐가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용역 발주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역의 상당수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심장욱(민주·북구5) 의원은 옛그제 시정질의회에서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 가운데 사장된 프로젝트가 있고 타당성 부족으로 심의 단계부터 부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85건에 578억 원을, 올 들어 4월까지 131건에 78억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화되지 못해서 자재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 못하고 사장되는 등 부실 용역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크게 낮아진 것도 부실 용역의 단면을 반영한다. 심 의원은 광주 아시아캐릭터 테마파크, 오페라하우스

건립 용역 등을 부실 용역의 단적인 예로 꼽았다.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인 용역은 공학술, 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을 파악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필요성 등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책임 회피, 보여주기식으로 무조건 외부 용역을 맡기는 것은 형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심 의원의 지적처럼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무조건 외부 용역부터 맡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뒤늦게 광주시가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하거나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책임회피식 용역에 형세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결정 권한과 자체 연구 확대 등 획기적인 대책을 통해 용역 만능주의에 따른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더이상 내가 열여섯 살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서른여섯, 마흔여섯 같은 나이들도 여기고 조그맣게 느껴졌어. 더 이상 나는 학원에서 제일 작은 정대가 아니었어."

1980년대 흔히 볼 수 있었던 낡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전시장에 울리는 내 목소리가 낯설기도 했지만, 타이프에 담긴 그 목소리가 궁금하기도 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책 '소년이 온다'의 51페이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영상 속에서는 또 누군가가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었다. 1980년 살레시오 고등학교생이던 아들 백두선을 잃은 박순금 어머니 등 6명의 '오월 어머니들'이었다.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소리 없는 목소리'전(26일까지·기획 유재현·정현주)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오월 어머니와 시민들이 함께 읽는 프로젝트다. 김홍빈·심혜정·정기협 세 명의 참여작가는 오월 어머니들의 낭독 모습, 광주의 장소들을 촬영한 영상과 설치 작품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애도'를 전한다.

국내에서 40만부 이상 판매된 '소년이 온다'는 영미권에서 '휴먼 액트(Human Acts)'로 번역되는 등 20여개 국에서 출간돼 '오월'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몇 년 전 5·18 취재자 광주를 찾은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역시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고 했다. 그는 5·18 광장을 지날 때 "저기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상무관이구나"고 물었다.

'소년이 온다'에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되는 중학교 3학년생 동호와 그런 동호를 마음에 묻은 엄마 등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한다. "내가 나한테 한번 외준 것인데,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줄라고 온 것인데, 늙은 내가 너를 놓쳐 버렸어야." "엄마, 저쪽으로 가야, 기왕이면 햇빛 있는 데로.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오월 어머니들'의 육성으로 듣는 소설의 어느 구절과 동호의 내레이션이 마음을 움직인다. 소설을 낭독하며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지도 모른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